

여수 경도 개발 매매계약서 공개된다

비공개로 논란이 일었던 여수 경도 개발관련 매매계약서가 공개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9일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콘소시엄간 체결한 여수 경도 개발과 관련된 매매 계약서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특혜논란과 함께, 전남도의회에서 공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매매계약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인 절차와 시기만 남은 상태인데, 현재 마지막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된 뒤 공개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매매계약서는 도의회 기획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 변호사 입회하에 공개 미래에셋 1조투자 관련 특혜 의혹 '중지부' 찍을 것 비밀유지조항 '쟁점'...과장 고려 의원 각서 검토

행정부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변호사 입회하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쟁점은 애초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의 매매계약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조항으로 공개하되 도의회 의원들에게 각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공개과정에서 미래에셋

측이 수평중인 경도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회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매과정에서 비밀유지조항은 사인간의 거래도 있는 것으로 외부로 정보가 나갔을 때 해당 기업이 당한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이다"면서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못할 정도의 특혜나 비밀이 있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매매계약서 공개가 이뤄지면 특혜의혹에 중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 매각금액은 총 343억 원으로 미래에셋은 매각대금을 2017년 52억 원, 2019년 95억 원, 2024년 243억 원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현재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구상으로 세계 유수의 컨설팅 용역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지난달 27일 여수와 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을 핵심으로 한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자부 경자위에서 승인됐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집념' 유기농 배 재배하는 박창범씨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집념으로 7년만에 '유기농 배' 인증을 받고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 농민이 있어 화제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에 거주하는 박창범(45)씨가 1ha 규모에서 순환농법으로 배를 재배해 지난해 한국농식품인증원으로부터 '유기농 배' 인증을 받았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토양 재배 관리와 작물의 병해충 방제, 토양 분석, 수질분석 등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과수 품목

부족한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농자재 제품을 사용했으며, 과수원 내부 제초는 하지 않지만 과수원 주변 울타리는 연 3회 정도 실시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고 꿈에 그리던 유기농 인증도 받았다.

박씨는 생산한 유기농 배를 유기농가 20여 명이 함께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인 을 통해 서울과 지역 급식으로 나눠 납품하고 있다.

배즙과 같은 가공품은 현재는 양이 적어 직거래에 그치고 있지

도전 7년 만에 '유기농 배' 인증받아

일반 배 가격보다 두 배 높게 판매돼

은 친환경재배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배 농사만 지어온 베테랑 농사꾼인 박씨는 20년 이상 배만 재배해 왔다.

처음에는 관행농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유기농 선도 농업인들을 만나면서 8년 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꿈을 키웠다.

친환경농법 실천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과 수확이 전무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했다.

과수원에 지리는 잡초를 없애지 않고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에 양분을 공급했다.

장어액비, 폐지갑지팡이와 인화추출물 등 식물이 가진 다양한 성분을 추출해 석회와 유황 혼합물에 섞어 살충 및 살균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만, 앞으로는 더 많은 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씨의 유기농 배는 5kg 한 상자당 3만원 정도로 일반 배의 2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연 6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박씨는 "잡원 유기농을 실천해 온 선배들을 보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꿈을 기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과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학교급식과 방과후 과일급식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기농 과수 성공사례를 표준농법으로 매뉴얼화 해 과수 등 친환경 재배농가에 적극 전파함으로써 유기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주·전남 전통시장 최고 맛집을 찾아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광주시(시장 이용섭),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공동으로 '맛있는 전남 전통시장 푸드쇼'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푸드쇼'는 전통시장의 맛과 멋,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먹거리를 지역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려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진행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20팀(광주 10팀, 전남 10팀)을 선발해 지역별 예선을 치르게 된다.

전남 예선은 10월 18일 목포 자유시장에서, 광주 예선은 10월 2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해 지역별 4팀씩 총 8팀을 선발해 오는 11월 8일 광주 남

광주시장에서 결선 경연을 통해 '광주·전남 전통시장 최고 맛집'을 선정하게 된다.

예선과 결선은 KBC광주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우승팀인 정남진장 흥도요시장 '장흥삼합버거'는 장흥농협 하나로클럽 매장에 입주하는 등 지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순천이렛장 칠리크림세우는 특허출원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사업장을 확장했다.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청장은 "전통시장은 볼거리, 즐길거리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져야만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경쟁할 수 있다"며 "이번 푸드쇼 입상자는 지자체와 함께 점포와 시장홍보, 전문가 컨설팅, 판로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수산물 8439톤 방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오징어·갈치·조기 8439톤을 방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을 방출한다. 방출기간 동안 시

장상환과 수급여건에 맞게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방출 수산물은 전부 편자 판매가 격이 지정돼 있어 시중가격보다 15~30% 싸게 판매된다.



"올해 가장 큰 '대박'을 찾습니다"

농진청 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박과채소를 뽑는 '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신청 서류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호박, 박, 수박, 수세미, 동아, 여주 등 박과채소는 모두 출품할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선발대회 담당자 전자우편(ojlec6524@korea.kr)이나 채소과 팩스(063-238-6605)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품할 박과채소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283-9'로 보내면 된다.

시상은 슈퍼호박, 동아, 기타 박과채소 3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모두 22점을 선발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수상작에는 농촌진흥청장상과 2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제공된다.

대회 입상작을 포함한 다양한 박과채소와 예술작품들은 이 대회의 연계행사인 '박과채소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회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함께 열린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대현 과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박과채소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난히 극심했던 올해 폭염 속에서도 정성들여 재배한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